

## 학생독후활동

소 속 : 현대청운고등학교 3학년 06반 19번

작 성 자 : 이승준

책 이 름 : 시지프 신화(감상문쓰기)

저 자 : 알베르 카뮈 / 김화영

글 자 수 : 1102자

관련과목 : 없음

작성일자 : 2022년 08월 17일

### 제목

'시지프 신화'를 읽고

알베르 카뮈는 정말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그것은 ‘자살’ 이라고 했다. 인생이 굳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살면서 무대 장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닥친다.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문득 ‘왜’ 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놀라움이 동반된 무기력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무기력은 기계적인 삶의 행위들 끝에 느껴지지만 이것은 동시에 의식도 작동시키는데, 이 무기력이 의식을 일깨우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의로의 복귀이거나 아니면 자살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부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카뮈는 부조리로부터 반항, 자유, 열정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카뮈는 자살을 거부한다. 지성과 열정이 서로 뒤섞이고 서로를 열광케 하는 이 일상이 노력 속에서 부조리한 인간은 자기 힘의 근본을 이루게 된 하나의 규율을 발견한다. 거기에 필요한 열의, 집중과 통찰력은 이렇게 해서 정복자의 자세와 일치하게 된다. 시지프의 신화에서 시지프가 신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올리는 우월한 성실함을 가르쳐준다. 즉 자살을 부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삶을 대하는 것이다.

카뮈는 시지프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대하는 태도에 집중했다. 바위를 올리고 나면 또 내려가고 끝도 없이 반복되는 무한한 형벌 앞에 신에게 당당하게, 때로는 신을 무시하면서 죽음을 증오하고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시지프. 시지프는 바위를 밀어올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 자신이 해냈다는 그 기쁨에 굴러 내려가는 바위를 보고 웃을 수 있었다.

부조리한 인간의 운명을 거부하거나 피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시지프를 통해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카뮈는 ‘세상에 한계를 인식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고 한다. ‘부조리에 반항하는 인간은 부조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특정한 목적이나 구원에 속박되지 않은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얻는다’ 라고 말한다. 카뮈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부조리하다고 한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한계를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창작의 발식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부조리에 반항하면서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